

-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

시 정 연 설 문

2009년 11월 12일(목)
제198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8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도의 새해 살림살이가 될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도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도정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예년과는 사뭇 다른 감회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8년 7월 첫 도정연설을 통해 모든 정책의 기초와 척도를 강원도 세상에 두고 이를 앞당기는 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한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강원도 세상은 바로 강원도의 이익이 존중되는 세상, 강원도의 가치가 제대로 대접 받는 세상, 강원도의 미래가 보장되는 세상입니다.

강원도의 문제는 강원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진취적·창조적 도민정신과 도민통합이 힘의 원천임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소외와 낙후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IMF 관리체제라는 어려운 한계적 상황에서 도정을 맡아 쉽 없이 달려온 결코 짧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강원도의 미래와 희망을 창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왔고,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한 초석도 다졌고, 진전도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도민 모두가 패배와 한계의식을 떨쳐버리고 하면 된다는 강한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도 전역의 입체적·균형적 발전을 위한 밑그림도 완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폐광지역, 동해안권 등 특정지역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고속화·광역화·첨단화의 길 전략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터널화·교량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수도권에서 1~2시간대 진입과 도내 2시간대 생활권이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기업유치에 매진하여 기업의 불모지였던 강원도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신 기업지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올해에만 세계 최고 권위의 바이오·의약연구기관인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등 119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지금까지 총 1,000여 개에 달하는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3각테크노밸리 전략 추진으로 바이오·의료기기·신소재·플라즈마 등 지식첨단산업이 강원도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전 시정연설을 통해 강원도형 녹색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는 전략과 틀을 미리 짜서 남보다 앞서 추진한 결과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중심도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강원도적 요소의 관광자원화와 함께 도 전역의 관광·휴양·레저·스포츠 특구화를 추진하여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의 차별화·최고화·명품화로 전국 최고의 친환경 웰빙 도로서 입지를 구축하였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농어가 소득도 전국 상위수준에 진입하였습니다.

복지·환경·문화 부문은 강원도형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모든 부문에서 지표가 상위권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99국제관광엑스포, 동북아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동아시아관광포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 등을 통해 강원도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켰고, 강원도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기업도시, 알펜시아리조트,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본궤도에 오르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동강댐 백지화, 동해안 군 경계 철조망 철거 등 주요현안들도 해결되었고 로스쿨, LNG생산기지 등도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이제 강원도는 더 이상 예전의 강원도가 아니며 강원도가 몰라보게 변화·발전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성장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도내인구는 2007년도 말을 기점으로 하여 지금까지 8,55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민 1인당 GRDP 증가율도 최근 5년간 37.5%로 전국 평균 33.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런 발전은 어느 누가 해준 것이 아닙니다.

도민들의 도전정신과 열정, 그리고 통합된 힘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도의회, 도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낸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2000년 고성산불, 2002년~2003년 연이은 태풍 루사와 매미, 2005년 양양산불, 2006년 인제·평창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과 재해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항구적 복구와 선진형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최근 3년간 대형 재해와 재난이 없는 해로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아쉽고 미흡한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진척이 더딘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진척이 더딘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적 경제 위기가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도정을 조기집행, 토털 세일즈 체제로 전환하고 경제 살리기를 거도적 차원에서 총력 추진해 왔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반납, 해외연수·행사비 등 경상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비를 반납하시는 등 솔선하여 참여해 주셨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도 정부의 목표인 60%를 훨씬 상회하는 69.5%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런 노력들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수, 기업경기 실사지수,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경제 살리기 대책 추진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집된 국민적, 도민적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표출되는 등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등 강원도로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체제와 행정구역 개편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라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존립, 지방의 가치, 지방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지방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그리 간단치 않고, 어떻게 진전이 될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원도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이 새로운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고 강원도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연의 과제입니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담보하는 녹색성장의 선단지입니다.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대한민국의 허파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는 도정운영의 기초를 강원도 녹색성장 선도화의 해로 삼아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시책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유치가 확정된 기업이 차질 없이 이전되고 지역기업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38개소 중 올해 말까지 11개소를, 내년까지 19개소를 완공하는 등 전국 최고의 기업입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금, 경영, 판로, 수출 등 맞춤형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고객중심으로 현대화·특성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한 경제적 일자리 5만 개를 내년까지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지식,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3각테크노벨리 전략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 플라즈마 등 도의 전략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의료기기특화단지, 의료관광·의료융합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중점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LNG생산기지, 최첨단 복합화력발전단지 등 국책에너지 플랜트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한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어가 소득을 최상위 수준으로 진입시키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한우, 인삼, 약초 등 10대 명품 농특산물을 특성화·차별화·명품화하여 전국적 공급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농어촌의 발전과 소득증대로 연계시켜 나가는 한편, 농업경영부담의 완화와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등을 추진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경영 안정화, 수산가공식품 개발 등 수산업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아시아 관광허브를 목표로 강원관광을 선진화·소득화시켜 나겠습니다.

산소길·자전거길 강원 3,000리, 동해안 낭만가도, DMZ 명소화,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DMZ 박물관, 평화생명동산, 베트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글로벌 테마파크 등 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도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확충할 것입니다.

아울러 설악산 등 국립공원 재개발,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관광R&D글로벌파크 조성 등 강원관광을 선진화할 과제들을 가시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문화·환경 분야는 맞춤형 시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보장 등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개편할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등 민간차원의 복지를 제도권으로 유입하여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급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서비스 확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 식품 위생 안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부문은 강원의 얼 선양 사업 마무리 등 강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강릉단오제, 춘천마임축제 등을 세계적 문화·예술제로 명품화 하고 박물관, 미술관 등을 관광 상품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환경부문은 전국 최고인 청정 1급수 유지율을 현 72%에서 73%로 높일 수 있도록

한강수계 흙탕물저감프로젝트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을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하면서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 사업 등 폐기물을 에너지·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는 우선 착수 가능한 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 전역의 2시간대 생활권을 완성하고 동북아시대를 대비하여 복합물류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재정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지만 내년 SOC 국비예산이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춘선 복선전철, 덕소~원주 간 복선전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동서고속화 철도,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핵심 교통망이 조기에 착수되고 개통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연결도로를 비롯한 국도, 지방도 등 간선도로망과 터널화 사업도 집중 투자하여 조기에 완성시키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개설한 4개 국제항로가 북방교류와 교역의 거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동량 확보 등 전방위적인 지원협력 체제를 가동해 나가는 한편 동해항, 속초항, 호산항 등 항만 인프라 구축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광역권, 광역경제권 등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해서 큰 틀의 권역별 발전전략을 구체화·가시화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본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폐광지역 2단계 진흥사업 정부 계획화, 고등법원 춘천지부 설치, 도암댐 등 주요 현안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움직일 수 없는 강원도의 과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정부, KOC, 유치위원회 등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다시 한번 불씨를 지펴 주시고 그 열기를 확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과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의 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초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325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조 690억 원보다 8.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년도에도 경기침체로 큰 폭의 지방세 결함과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만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소비세 신설과 지역경제 회생, 녹색성장, 서민·취약층 생활 안정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내 국책사업도 금년보다 12.7%가 증가한 3조 7,05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예산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 출신·도 연고 국회의원님들이 국고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해주신 결과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녹색성장을 통한 잠재력 확충과 2시간대 생활권 완성 등 도정 역점 시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8.9%가 증가한 2조 8,980억 원 규모로 산업경제, 농림수산, 국토해양분야 등 경제분야가 전체 예산의 37.3%인 1조 795억 원, 복지,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42.2%인 1조 2,237억 원,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에 6.2%인 1,809억 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14.3%인 4,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8%가 증가한 4,345억 원 규모로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81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78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43억 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43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정부 추경을 비롯한 7월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비 등 예산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도전은 시작만으로도 위대하며 도전하는 그 자체가 바로 희망입니다.

그간 우리는 강원도 발전을 위한 기초를 견고하게 다져왔습니다.

공정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지극정성을 다해 가꾸어 왔습니다.

이제 알찬 결실을 거두는 일만 남았습니다.

비행지난 종지사난(非行之難 終之斯難)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실현하는 데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도에서도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서 확대 설치하고 민·관·군 협력 체제를 가동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개인위생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되 생활하시는 데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300만 내외 도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강원도지사 김진선